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금리 (미국 9년)	4.006 (-0.034)	환율 (한-달러)	1358.60 (-7.40)

환율 하락세… 수출기업에 직격탄 반도체·車 업계, 내년 계획 재점검

고환율 효과 사라져 수익성 ‘비상’
환율 반등·추가하락 예상 엇갈려
기업 매출·영업익 등 보수적 조정

1500원대를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석 달 만에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영 선풍이 복잡해지고 있다. 달러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 환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하반기 실적은 물론 추석 이후 본격화되는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말 1537원 수준에서 9월 23일 1362원 수준까지 약 200원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 7월 초 1554.40원과 비교하면 3개월도 안 돼 12%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의 기준이 될 적정 환율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영업이익 목표뿐 아니라 투자와 생산 계획까지 보수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실적 전망에는 이미 환율 부담이 반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기존 115조 5000억원에서 104조1000억원으로 11조 4000억원 낮아졌고, SK하이닉스도 76조 7000억원에서 74조원으로 2조7000억원 하향했다. 두 회사의 전망치가 합산 14조 1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기존보다 각각 28조1000억원, 6조9000억원 가량 낮아졌다.

자동차 업계 역시 고환율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는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2원

을 기록하면서 환율 효과를 누렸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차는 2분기 매출 49조2153억원, 영업이익 2조 8509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아는 영업이익 2조628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분은 현대차 약 1조9000억원, 기아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추석 이후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SK·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급변한 환율을 반영해 경영계획을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단순히 수출 목표를 낮추는 것을 넘어 생산량과 투자 규모, 비용 절감 목표 등을 함께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연휴 마지막날 영화관 ‘북적’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85주 꺾 오른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른다

9월 셋째주 매매가 0.13% 상승
이번주도 상승땀 역대 최장 기록
상승률 기준, 文정부 시절의 2배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으로 오르며 역대 최장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록과 같아졌다. 기간은 같지만 상승률 기준으로는 이미 당시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공급절벽, 전세난과 맞물려 추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85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역대 최장 기간과 같아졌다. 이번주에도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상승폭은 이번 상승장이 훨씬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17.5%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7.7%의 두 배가 넘는다. 85주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 첫째주 이후 67주 동안만 따로 봐도 상승률이 15.2%에 달한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서울 전역을 토자기래하가 구역으로 묶었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28.1%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고 ▲송파구 27% ▲마포구 23.6% ▲영등포구 22.1% ▲광진구 21.2% 등 한강벨트가 그 뒤를 이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계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M-커버스토리

AI 확산·중동 불안… 전력확보 ‘올인’

에너지 안보 시험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수출의 전기화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전력 공급의 제약에 중동발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공급 체계 재편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적용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역할을 재조정하고 유연성 전원과 전력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난 22일부터는 향후 원전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약 3개월간의 공론화에도 착수했다.

전력 공급 체계 재편의 배경에는 가파른 수요 증가가 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생

산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건설만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25~30GW 늘고, 전기차·난방 전기화까지 더해지면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발전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전원과 전력망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높은 산림 비중·인구 밀도로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가 어렵고 발전소·송전선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로이터는 전남 영광 등에서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에 계속〉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농지·부동산 수탈 멈춰야”
▲ 권철승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당론 방향 제시

▲ 한동훈 “DMZ 폭발 조사 29일로 미룬 사람이 범인”
▲ 박지원 “당신들은 간첩 북풍 조작당” 여권 역공

▲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직격에…與 “자극적 말 꺼내 정치 선동”
▲ 조국, 공소취소 의원모임 해산 촉구…“대통령에 부담만 안겨”